

# 淸原에 있는 書院·祠宇·旌閭의 현황

신 경 수\*

- 
- I. 머리말
  - II. 서원·사우의 설립
  - III. 청원지역에 현존하는 사우
  - IV. 정려의 현황
  - V. 맺는말
- 

## I. 머 리 말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송조효친 사상을 각 지방에 보급하고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 보다 서원·사우·정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에 산재된 서원·사우·정려는 유교문화를 상징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우리 청원지방에 세워진 서원 사우 정려의 현황을 이미 문헌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하여 조선 중기 이후 이 지역에 설립된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현재적 관점에서 서원 사우 정표의 보존의 가치와 享祀의 의미를 찾아보자는데 의도가 있다.

## II. 서원·사우의 설립

서원은 先賢을 奉祀하고 자제를 모아 講學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조선 중기이후 사림세력의 지방 확산과 교학진흥정책에 힘입어 서원의 설립이 널리 보급되었다. 祠宇는 역대의 충신과 선

---

\* 청원향토문화연구회위원

현을 祭享하는 사당으로 그 연고지에 건립 되었다.

그것은 성리학적 가치관 및 윤리관의 확립이 강조되던 당시에 있어서 인심풍속의 순화와 백성의 풍기를 바로잡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교학진흥정책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서 鄉約의 시행이 강조되는 한편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의 설립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선현의 연고지에 그 지역의 士林이 주축이 되어 서원을 창건하였고 사우를 건립하였다.

조선 후기 이후 청원지역 내에 세워진 서원과 사우를 『增補文獻備考』와 『典故大方』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선후기 설립된 서원·사우의 현황

서원명	설립년대	소재지	배향자
송천서원 (松泉書院)	1695(숙종21)	옥산면 환희리 송천마을	김사렴· 최유경· 이정간· 박광우 이제신(추향)· 이지충· 조강· 이대건
쌍천서원 (雙泉書院)	1695(숙종21)	낭성면 무성리	신식
기암서원 (機巖書院)	1699(숙종25)	오창면 기암리	강백년· 오숙
국계서원 (菊溪書院)	1701(숙종27)	북일면 국동리	박증영· 변경복· 이덕수· 이수언
체화당사우 (棲華堂祠宇)	1701(숙종27)	남일면 신송리	노계원· 노후원· 노종원· 노일원
노봉서원 (魯峯書院)	1615(광해7)	현도면 사석리	송인수· 정렴· 송시열
검담서원 (黔潭書院)	1695(숙종21)	부용면 하석리	송준길
덕천사우 (德川祠宇)	1695(숙종21)	가덕면 노동리	유희령· 유홍룡· 우신언· 정응창

위 표에 제시된 8개소의 서원 및 사우는 현재 청원군 내에 설치된 것이다. 그 중에 노봉서원· 검담서원· 덕천사는 문의현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주시가 분리되면서 신항서원· 표충사· 봉계서원· 송계서원은 청주시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서원은 지방 사람의 근거지가 되어 사람세력의 확대 재생산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서원이 선현 봉사와 자제교육 그리고 향촌 주민의 교화라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파· 당파 등에 따른 연고지에 서원을 설립함으로써 서원의

濫設 또는 疊設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특정 가문의 선조를 奉祀하는 祠宇와 혼돈되어 다투어 설립되었고 점차 강학의 기능은 쇠퇴하고 祠廟로서의 기능은 강화되어 특정가문의 선조이거나 혹은 제자들이 스승을 존송하는 인물의 사당을 건립하고 거기에 소속함으로써 사림으로서의 신분을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변질되었다. 그 밖에도 서원의 폐단은 여러 형태로 파생하였다.

따라서 1871년(고종8) 흥선대원군은 사액서원 47개소만 남기고 8백 여 개소에 달하는 祠院을 모두 철폐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문중에서 사당을 세우고 봉향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체로 1945년 8.15 광복 이후 복고풍조에 의하여 祠院을 다시 증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증건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사우를 서원이라 개칭한 경우도 있으며 본래 있었던 자리를 옮겨 증건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배향 인물의 이동이나 追配한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 서원은 강학의 기능은 소멸되고 선현 제향의 행사만이 남아 있으므로 서원은 祠宇의 기능만을 가진 祠廟와 다름없다.

그리고 현재 청원 경내에 있는 사우는 문중이 주축이 되어 복원하였거나 창건되었으며 오늘날 복원된 서원은 다음의 7개소가 현존한다.

표 2. 1871년 철폐 후 복원된 서원

서원명	건립년대	복원년	소재지	비 고
검암서원 (儉巖書院)	1694(숙종20)	1958	가덕면 병암리	조현외10명배향,
송천서원 (松泉書院)	1695(숙종21)	1976	오창면 양지리	추항(최석정·이인혁·이효석·남구만·박문수·이종성)총14명
쌍천서원 (雙泉書院)	1695(숙종21)	1989	낭성면 무성리	1989년 증건,영정비치
기암서원 (機巖書院)	1699(숙종25)	1984	낭성면 갈산리	오창면 기암리에서 옮겨 복원
국계서원 (菊溪書院)	1701(숙종27)	1960	내수읍 비중리	현,내수읍국동리에서 옮겨복원
체화서원 (槎華書院)	1701(숙종27)	1967	남일면 신송리	체화당사를 서원으로 개칭
백록서원 (白鹿書院)	1710(숙종36)	1929	옥산면 환희리	주항(권상),봉계서원에서 분리

위 복원된 서원의 경위를 살펴보면 검암서원과 백록서원은 조선시대에 이미 설립되었다하나 문헌에는 기록이 누락되었다. 특히 백록서원은 1760년(영조36)에 청주시 월오동에 있는 봉계서원(鳳溪書院)으로 합사하였다가 1871년 철폐되자 1929년 안동권씨 문중에서 옛 자리에 중건하고 남강사(南岡祠)라 하였었다. 채화서원은 채화당사우를 개칭한 것이다. 송천서원은 복원하면서 위 표의 비고란에 명시된 6위를 추향하였으며 옥산면 환희리에서 오창면 양지리로 이거하였다. 기암서원은 복원 당시 낭성면 갈산리로 이거하였으며, 국제서원도 1960년 복원하면서 비중리로 옮겨 중건하였다. 그리고 노봉서원은 복원되지 않았으며, 그곳에 배향되었던 선현 송인수·정렴은 강고사로 옮겨 배향하고 있으며, 사액서원 이었던 검담서원은 송준길(宋浚吉)을 봉향하는 서원이었으나 복원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노봉서원에 배향되었던 우암 송시열과 동춘 송준길은 文廟에 배향된 인물로 첩설을 피한 것이라 이해된다.

대체로 서원의 복원은 배향된 인물의 후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유림회에서 향사를 주관하고 있다.

### Ⅲ. 청원지역에 현존하는 사우

사우(祠宇)는 선현이나 충신의 위패를 두기위해 지은 사당으로 표충사(表忠祠)·모충사(慕忠祠)와 같이 조정에서 사우를 지어 그 충절을 기리고 제향 하는 경우 외에도 특정 씨족의 시조 또는 중시조의 위패를 모시거나 宗中の 뛰어난 인물을 봉향하기 위하여 세운 사묘(私廟)의 성격을 띤 사우는 조선 후기 이후 거의 제한 없이 설립하였다.

표 3. 사우의 현황

사우명	설립시기	중건년	소재지	배향인물
충정사(忠靖祠)	1598(선조31)	1958	강내면 월탄리	밀천군 박승원(朴崇元)
정평사(靖平祠)	1619(광해11)	1929	강외면 상정리	여칭(呂稱)
덕천사(德川祠)	1672(현종13)	1971	가덕면 노동리	유희령, 유홍룡, 우신언, 정응창
강성사(江城祠)	1694(숙종20)	1926	문의면 마동리	강성군, 봉석주(奉石柱)
송현사(崇賢祠)	1717(숙종42)	1989	미원면 옥화리	이득운, 윤승임, 박근원, 윤사석

죽계사(竹溪祠)	1738(영조14)	1960	북이면 용계리	금성대군 이유·이보흠 추향 (이용 이영 이어 이천)
공효사(恭孝祠)	1771(영조47)	1920	옥산면 신촌리	박중손(朴仲孫), 목천면에서 옮김
충현사(忠顯祠)	1784(정조8)	1989	남일면 화당리	송시영(宋時榮)
수암사(守庵祠)	1810(순조10)	1975	오창면 일신리	박지화(朴枝華), 북이면에서 옮김
충신사(忠臣祠)	1887(고종24)	1989	남이면 가마리	이민핵(李敏核)
고천사(高川祠)	조선 말기	1959	가덕면 청룡리	신정(申澍)
공간사(恭簡祠)	1910	1947	북이면 내추리	윤형(尹炯)
원모사(遠慕祠)	1928	1990	현도면 노산리	안조동(安祖同)
효충사(孝忠祠)	1929		강내면 연정리	조순생 조명 조강
강고사(江臯祠)	1932	1968	현도면 중척리	오명립, 추향(송인수 정립)
묵정사(墨井祠)	1971		낭성면 관정리	신덕린, 신포시, 신장, 신식, 신용, 신집
기산사(箕山祠)	1949	1989	문의면 상장리	조장하(趙章夏)
이정사(梨亭祠)	1954	1969	낭성면 이목리	한원진 김제환 박유형, 추향(김성환 신태구)
남양사(南陽祠)	1964		미원면 수산리	홍은열 홍관 홍자번 홍규
충경사(忠敬祠)	1967	1988	가덕면 시동리	변준(卞僞)
충현사(忠顯祠)	1967		옥산면 국사리	강감찬(姜邯贊)
홍양사(鴻陽祠)	1972		내수읍 비중리	라천서, 라사중, 라식, 라숙, 라만갑, 라양좌

위 표에 의하면 덕천사를 제외하고는 문헌에 등재되지 않은 祠宇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증보문헌비고』가 1903년부터 보수하여 1908년에 간행되었음에도 보완에서 누락된 것이다. 또한 광복 이후 증진하면서 사우를 서원으로 현판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덕천서원 죽계서원이 그 예이다. 오늘날 서원이라 해도 강학의 기능은 소멸되고 제향의 기능만이 현존하는 실정으므로 祠院이란 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위 표 3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22개소의 사우 중에 11개소는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사우가 4개소이고 그 외에는 광복이후 설립된 점으로 보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송조효

친 사상은 이어져 내려 왔다고 볼 수 있다.

배향된 인물로는 충신으로 사우를 짓고 위패를 봉안한 것은 충정사의 박승원이 호성공신 2등으로 책록되었고 강성사에 봉안된 봉석주는 정난공신 2등에 책록된 바 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의 위패를 봉안한 충현사, 일제에 저항한 김제환과 성리학자 한원진 등의 위패를 봉안한 충경사, 노봉서원에 봉안되었던 선현 송인수 정림과 오명립의 위패가 있는 강고사, 지방의 교화에 힘쓴 선비로 이득운 윤승임 박근원 윤사석의 위패를 봉안한 송현사 등 합사의 경우도 후손인 문중 내지는 문하생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따라서 사우는 거의 모두가 先祖의 위패를 모신 家廟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고장의 유림들은 여러 祠院의 향사에 참여 함으로서 선현에 대한 존숭의 사상이 계승 유지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 IV. 정려의 현황

정려는 충신 효자 열려들을 그들이 살던 동네에 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것으로 조선 초부터 유교적인 윤리와 도덕을 널리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자는데 그 의도가 있었다. 청원군내에 있는 각종 정려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충신각(忠臣閣)의 현황

충신각명	행적	건립시기	소재지	비고
오대남(吳大男)충신각	1636년 병자호란 순절	1675(숙종1)	현도면 시목리	읍지
지여해(池汝海)충신각	1636년 병자호란 순절	1713(숙종39)	남일면 은행리	읍지
나사중(羅嗣宗)충신각	1491년 여진토벌 순절	1719(숙종43)	내수읍 비중리	읍지
김한정(金漢廷)충신각	1728년 이인좌란 전사	1865(고종2)	북이면 석성리	
김선복(金善復)충신각	1592년 임진왜란 순절		문의면 문산리	읍지
전상의(全尙毅)충신각	1627년 정묘호란 순절	1903(광무7)	내수읍 구성리	
김 절(金 節)충신각	1592년 임진왜란 순절	1914	오창면 신평리	
이민핵(李敏核)충신각	1728년 이인좌란 충절	1939	남이면 가마리	
김 극(金 棘)충신각	1636년 병자호란 순절	1960	북이면 현암리	

위 표 4의 작성은 『淸원군지』에 수록된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비고란은 1871년(고종8)에 간행된 『湖西邑誌』에 수록된 「충신」의 기록과 일치한 경우 “읍지”라 표기하였다. 충신으로 정려되었으나 그 지역에서 旌門을 세우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유림이나 문중에서 정문을 세워 기리고 향촌 교화에 표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先祖에 충신과 효자가 대를 이어 정려되었을 경우 문중에서 합설 또는 복설하는 사례도 있어 충효각을 세웠다

표 5. 충효각(충효각)의 현황

충효각명	정려인		소재지
진주강문(晉州姜門) 충효각	강서 :1544년 효자정려 강수남:1712년 충신정려 강응명:1803년 효행정려(읍지)	1935중건 3합설	미원면 금관리에서 1935년 문의면덕유리
남양홍문(南陽洪門) 충효각	홍주화:1801년 효행정려(읍지) 홍석무:1806년 충효정려 전주이씨:1819년 효부정려	1967중수 3합설	미원면 미원리
경주최문(慶州崔門) 충효각	최응허:1861년 최란선:1861년 충신정려(읍지)	1861중건	문의면 구룡리
경주김문(慶州金門) 충효각	김세만:1887년 충신정려 김취은:효자	1986중건	남이면 척산리
인동장문(仁同張門) 충효각	장경달:1935년 충절 장문창:효행 장순급:효행	1935건립 3합설	북이면 호명리

위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문중에서 정문을 합설하여 선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읍지」에 등재된 인물은 충절 또는 효행으로 관직과 정려를 내린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나 기록이 없는 경우는 「군지」를 참조하였을 따름이다.

효자각(孝子閣)에도 두 분을 함께 정문을 세우는 경우 쌍효각(雙孝閣)이라 하고 3분인 경우는 삼효각(三孝閣)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효부각(孝婦閣)·효열각(孝烈閣)·열녀각(烈女閣) 등으로 구분된다. 그밖에도 비석만을 세운 효자비·충열비·열녀비·효열비 등이 있어 충효를 기리고 선양하고 있다.

정려정책은 조선 초부터 유교적 이념에 따른 사회교화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리하여 충신·효자·열녀를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신분을 막론하고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정문을 세워 기리고 또한 복호(復戶)하게하고 가난한 자는 구휼케 하였다. 또한 신분을 우대하여 벼슬을 내리고, 발탁하여 등용하는 은전이 있었다. 따라서 충효열은 모든 백성의 실천 덕목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며 각 동리에 충효열의 정문이 세워진다는 것은 영광으로 인식되었다.

우리 청원군 각지에 산재된 정문은 효자각 21개소, 쌍효각 4개소, 삼효각 3개소이고 28개소의 효자문과 효부각 4개소, 효열각 5개소, 열녀각 6개소로서 모두 43개소의 정려가 설치되어 있다.

## V. 맺는 말

이상에서 청원지역에 설치된 서원·사우·정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선말 문헌에 등재된 서원과 사우는 8개소였으나 祠院 철폐 후 복원된 서원은 현재 7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복원된 서원은 강학의 기능은 소멸되고 선현 향사의 기능만 존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871년 철폐된 이후 복원된 사우는 9개소에 이르고 새로 건립된 사우는 13개소로서 모두 22개소의 사우가 있다. 따라서 서원과 사우는 합계 29개소가 설립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유림들에 의하여 향사가 시행되고 있다.

정려는 충신각 9개소 충효각 5개소, 효자각 28개소, 효열각 15개소 등으로 57개소가 건립되어 있다.

이들 정려의 설립은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교화정책으로 권장되었으며 당시는 지방 사림이나 수령의 추천으로 각도의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하면 정려와 포상을 내리는 제도가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지방의 각 기관에서 표창하면 문중 또는 동민에 의하여 정문이나 비석을 세워 기리는 사례에 따라 정문의 건립이 확산되었다.

사원과 정려는 송조효친의 유교적 윤리 도덕의 실천의 표상으로서 향촌에 남아있는 유교문화의 소산이다. 전근대사회에서는 향촌에 정착한 세거 士族인 경우 집성촌을 형성하면 송조효친 사상에 의하여 입향조를 비롯한 묘역이나 祠廟가 있게 마련이고 서당이나 서원을 세워 자제교육에 힘썼으며, 洞口에는 충효열의 정려가 있어 주민교화에 표상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청원은 선비의 고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유교문화의 소산을 현재적 관점에서 유지 보존하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增補文獻備考』(影印本)下, 東國文化社, 195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2, 민족문화추진회, 1969  
『忠清道邑誌』8-1, 아시아문화사, 1984  
『湖西邑誌』8-2, 아세아문화사, 1984  
『清原郡誌』, 청원군지편찬위원회, 1990  
『清原郡地名誌』, 청원문화원, 1997  
姜敦錫 編著, 1982 『典故大方』, 明文堂  
鄭萬祚 著, 1997 『朝鮮時代書院研究』, 집문당  
朴 珠 著, 1993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일조각